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기로에선 RSA의 성장전략

□ 영국 손해보험회사인 RSA는 최근 설립 300주년을 맞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손해보험시장을 진출 대상으로 포함하며, 이머징시장은 특히 비중 있게 접근하겠다는 성장전략을 밝힘.

○ RSA는 2008년 현재 수입보험료 기준 영국 랭킹 4위(약 25억파운드)의 손해보험회사로서 가계성재물보험(household property),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음.

- 손해보험산업의 랭킹 1위는 생손보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Aviva로서 특히 자동차보험, 가계성재물보험, 배상책임보험에서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음.

○ RSA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에 구매 받지 않는 시장진출 의지를 밝힘.

- 이미 아일랜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남.

○ 특히, 성장잠재력이 있는 이머징시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RSA의 2010년 이머징시장 목표성장률은 12%로서 추후 이를 20~25%까지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함.

○ 한편 인수·합병은 RSA의 주요 성장전략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RSA는 30여개의 인수·합병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그러나 애널리스트들과 주식시장에서는 RSA의 성장전략이 현재의 위상을 돌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짐.

○ 손해보험산업은 경기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RSA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가계성재물보험, 단체보험, 자동차보험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봄.

- RSA의 수입보험료는 최근 둔화되면서 정체가 장기화되는 추세임.

○ RSA는 주요 보험시장 중 하나로 영국을 포함하였으나, 영국은 경기 악화와 손해보험시장의 경쟁 심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함.

○ 아일랜드와 캐나다 보험시장의 성과가 주목되지만 이들 시장은 이머징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, 현재로서는 이머징시장의 성장 조짐도 뚜렷하지 않다고 반박함.

○ 또한 RSA는 최근 합병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무리한 합병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함.

(Financial Times 4/6)